

‘정세균 청문보고서’ 채택 힘난

여야 검증위 가동 놓고 대치...여 “흡결 없어” vs 야 “부적격”

여야는 9일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심사경과보고서 채택 및 추가 검증 여부를 놓고 대치했다. 국회는 지난 7~8일 인사청문회를 개최한 데 이어 본회의에서의 임명동의안 표결을 남겨놓고 있다. 하지만 여야가 정 후보자의 적격 여부에 대한 판단을 달리하면서 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하고 있다. 본회의에서 인준안 상정·표결이 진행되려면 경과보고서가 있어야 한다.

여기에 정 후보자 추가 검증을 위한 ‘검증위원회’ 가동을 놓고도 여야는 접점을 찾지 못한 상태다. 인사청문회법 제13조는 필요한 경우 청문특위 의결로 추가 검증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민주당 청문위원들은 이날 국회 정문관 기자회견을 통해 “인론에서조차 ‘한 방이 없다’고 할 만큼 정 후보자와 관련해 특별한 흡결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심사경과보고서는 지체 없이 채택해야 한다”고 주

장했다. 이들은 이어 “자유한국당은 정 후보자에 대한 결정적 한 방을 만들지 못하자 청문회 판 자체를 매듭짓지 않으려는 정치적 의도를 드러냈다”며 “보고서 채택 거부라는 정치적 결론을 내놓고 시간을 끌려는 의도라면 그 책임은 한국당에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한국당이 요구한 검증위원회를 구성, 추가 증인 채택 및 증인신문을 수용할 의사가 있으면서 ‘경과보고서 채택 약속’을 전제조건으로 요구하고 있다.

이에 한국당은 ‘경과보고서 채택’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있다. 정 후보자에 대한 의혹이 명확히 해소되지 않은 만큼 인사청문회법이 보장한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는 점을 부각하고 있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한국당은 정세균 총리후보자에 대해 도저히 적격판정을 내리기 어렵다는 판단을 할 수밖에 없

다”고 밝혔다. 심 원내대표는 이어 “입법부 수장까지 한 분이 총리가 되는 것은 삼권 분립을 훼손한 것이라 처음부터 부적격이었다”며 “도덕성과 관련된 의혹도 여러 개 있었지만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소명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심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정 후보자 의혹 가운데 확인되지 않은 의혹의 검증이 필요해 한국당은 불가피하게 검증위원회 구성을 요구했다”며 “검증을 기피한다면 한국당은 청문보고서를 채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추가 검증 등에 대한 여야 합의가 결국 결렬된다면 정 후보자에 대한 경과보고서 채택도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정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을 위해서는 문화상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직권상정해야 한다.

민주당은 오는 13일 본회의에서 정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는 이낙연 총리의 총선 출마를 위해 공직자 사퇴 시한인 16일 이전 새 총리를 임명하기 위한 것이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민주당 ‘인재영입 6호’ 워킹맘 변호사 홍정민씨



더불어민주당 영입인재 6호인 홍정민 변호사가 9일 국회에서 열린 인재영입식에서 이 해찬 대표로부터 당원 교과서 등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9일 여섯번째 총선 영입인재로 경제학 박사 출신 40대 여성 변호사로 법률서비스 관련 스타트업인 ‘로스토리’를 이끄는 홍정민 대표를 공개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홍 대표 영입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 사회를 맡은 박경미 의원은 “경제 분야에서 처음 영입한 분이다. 경력단절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여러 분야에서 성취를 낸 여성 인재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홍 대표를 소개했다.

홍 대표는 로스토리를 통해 AI(인공지능) 기반 자동차 기술을 접목해 수입료의 3분의 1 가격으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선보여 주목 받았다. /연합뉴스

與 “패트법 오늘 상정 ... 총리 인준 13일 표결”

여야는 9일 밤 국회 본회의에서 이른바 ‘데이터 3법’을 비롯한 민생법안 198건만 처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인 검경수사권 조정법안과 유치원 3법은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방침을 유지할 경우 10일 상정돼 13일 표결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과 한국당은 이날 원내수석부대표 간 접촉 등을 통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앞서 한국당 김재철 정책위의장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은 오늘 상정하지 않기로 얘기가 됐다”면서 “내일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에 대해 민주당과의 협상이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 밤 열리는 본회의에서는 한국당이 무제한 토론 신청 방침을 철회한 민생법안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넘어온 법안 등 모두 198건의 법안이 처리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이번 인사국회 회기를 10일에 종료하는 내용의 ‘회기 결정의 건’을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 13일 새 인사국회 본회의를 열어 패스트트랙 법안 및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표결을 진행한다는 목표다.

민주당은 한국당이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철회할 경우 검경수사권 조정법안도 10일 상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국당과 민주당은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이 표결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되는 13일까지 법안 내용과 관련한 협상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총선 라운지

이정희 “남구형 일자리 창출 주도 할 것”

더불어민주당 이정희 광주 동남갑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9일 “핵심공약으로 앞서 제시한 년간 72조원의 돈을 쓰는 한전과 연계한 에너지 신산업 육성이 시의적절하고 타당하다는 것을 최근 광주시의 조사 결과 입증됐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최근 광주시민들은 가장 우선 추진해야 할 사업으로 ‘광주형 일자리 등 좋은 일자리 창출’과 ‘한전 활용한 에너지 밸리 조성’을 꼽은 것으로 조사됐다”면서 “에너지 신산업 육성은 광주와 남구의 미래 100년 먹거리이자 일자리로서, 한전에서 일해보고 한전을 가장 잘 아는 저 이정희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광주형 일자리를 넘어 광주남구형 에너지 일자리 창출을 주도하겠다”고 밝혔다.



정준호 “복합서 신고 안된 여론조사 진행”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광주 북구갑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9일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당 광주시당이 선거의 중립을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 예비후보는 “지난 4월과 5월 이틀에 걸쳐 북구갑 선거구에서 선관위에 신고되지 않은 여론조사가 진행됐다”며 “모두가 알지 못했던 여론조사에 대해 당내 경쟁 상대 선거캠프에서는 너무도 정확하게 해당 여론조사를 대비한 정황이 있다”고 밝혔다.

또 “광주시당이 여론조사 사실을 특정 캠프에 유출했다면 ‘과정이 공정해야 한다’는 우리 당의 가치를 광주시당 스스로 짓밟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김동철, 13일 광주여대서 의정보고 토크쇼

바른미래당 김동철 국회의원(광산갑)은 오는 13일 오후 2시, 광주여대 유니버시아드 체육관에서 ‘광주의 내일을 말한다. 정치의 미래를 묻는다!’는 주제로 의정보고 토크쇼를 한다.

이번 토크쇼는 ‘웃음 박사’ 김영식 교수(남부대)와 오승용 교수(전남대), 김 의원 간의 대담 형식으로 진행된다. 이 자리에서는 호남고속철, 광주 군공항 이전, 광주형 일자리 등 김 의원의 의정활동 성과를 회고하고 과제를 모색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동철 의원은 “그간의 의정 활동을 가감 없이 보고 드리고, 광주와 광산의 발전 방향에 대해 함께 지혜를 나누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이용빈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 재검토해야”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광산구갑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9일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이 여전히 유효한지 근본적 질문으로 시작해, 누구를 위한 개발이 되어야 하는지부터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며 “광주 정신문명 발원의 자긍심과 새로운 미래를 담아내야 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계속 표류 중인 어등산 개발에 대해 정치권과 지역행정이 결단하고, 시민의 지혜를 다시 모아 바로 세워 가도록 합당한 방향을 다시 찾아야 한다”며 “그런 점에서 최근 광산구청의 시민합의를 병행한 전면 재검토 제안을 적극 환영한다”고 말했다. 또 “시민합의와 공론화를 병행하여, 속 시원한 해법을 만들어가자”고 당부했다. /오광록 기자 kroh@



주철현, 내일 여수시민회관에서 출판기념회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여수갑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오는 11일 오후 2시 여수시민회관에서 여수 곳곳을 누비며 만난 시민들 삶의 이야기를 책으로 담은 ‘여수와 산다’ 출판기념회를 한다.

주 예비후보는 지난해 민주당 여수갑지역위원장으로서 활동하며 현장 민생탐방을 진행했고, 탐방에서 만난 평범한 시민들 삶의 이야기를 들었다. 이 과정에 만난 평범한 시민들의 이야기를 20가지 주제로 나눠 책에 담았다.

주 예비후보는 “힘들 때 용기와 자신감을 주신 분들은 고향 여수의 이웃들이었다”며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 번 새긴 기회가 됐다”고 말했다. /김창화 기자 chkim@



우기종 출판기념회... 예산전문가 삶 피력

더불어민주당 우기종 목포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오는 11일 오후 2시 오거리문화센터에서 저서 ‘함께, 행진하는 담쟁이처럼!’ 출판기념회를 연다.

이 책에는 경제정책과 예산전문가로서 30여 년을 살아온 우 예비후보의 삶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 예산의 정확한 흐름을 파악하고 적기에 담당 공무원을 찾아다니며, 전남 최초로 예산 6조원 시대를 열었던 일화를 소개하고 있다.

우 예비후보는 8일 “출판기념회가 목표의 미래에 대해 시민과 함께 이야기하며 진심으로 소통하고 공감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면서 “목포시민들의 소망이 이뤄지는 시작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고규석 기자 yousou@kwangju.co.kr



정의당, 총선 1호공약 ‘청년기초자산제’

20세에 3천만원 제공...종부세 강화 등으로 재원 마련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9일 4·15 총선 1호 공약으로 ‘청년기초자산제’를 발표했다.

사회에 진출하는 청년들이 부모의 도움 없이도 공정한 출발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자산을 형성해주겠다는 취지다.

청년기초자산제도는 만 20세 청년 청년에게 3000만원씩 출발자산을 국가가 지급하고, 아동 양육시설 퇴소자 등 부모가 없는 청년에게는 최대 5000만원까지 지급하는 제도다. 필요한 재원은 상속증여세 강화, 종합부동산세 강화, 부유세 신설 등을 통해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심 대표는 “부모 찬스를 쓸 수 없는 수많은 대한민국 청년들이 사회에 나와 삶의 전망을 열지 못하고 희망 없이 살게 한다면 그 자체가 희망 없는 사회”라며 “부모 찬스가 없으면 사회 찬스를 쓰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선거철에 등장하는 흔한 포퓰리즘 공약이란 비난도 있지만, 청년들이 겪고 있는 실생활의 난관과 극심한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다면 비난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겠다”며 “좋은 포퓰리즘”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지오옥션부동산 중개법인(주)

경,공매 컨설팅

“30년 경력의 조여사 010-6211-4585”

부동산 추천 물건

- 건물** 광주 서구 치평동 (중심상업지역) 토지 : 434.44㎡(131.4평) 건물 : 2536.91㎡(767.42평) 지하1층 지상7층 매매가 53억 상무지구 이마트 인근 보증금 1억7천 월수익 2천5백
- 건물** 광주 광산구 월계동 (중심상업지역) 토지 : 764.8㎡(231.35평) 건물 : 463.54㎡(140.22평) 지상4층 매매가 49억 보증금 4억 월수익 1천9백만 임방울대로 대로변 위치최상
- 건물** 광주 광산구 우산동 (2종일반주거지역) 토지 : 623.8㎡(188.7평) 건물 : 1642.56㎡(496.87평) 지하1층 지상4층 매매가 32억 현 사우나운영중, 세계수영대회 선수촌아파트 앞.
- 건물** 광주 동구 학동 (2종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 토지 : 770.1㎡(232.95평) 건물 : 1458.86㎡(441.3평) 지하1층 지상4층 매매가 28억 학동 아이파크 인근 대로변
- 건물** 광주 광산구 신가동 (2종일반주거지역) 토지 : 900㎡(272평) 건물 : 1900㎡(547평) 지상6층 매매가 36억 전시광고효과 좋음, 신가재개발부근, 투자적합
- 건물** 광주 광산구 삼계동 (계획관리지역) 토지 : 4556㎡(1378평) 건물 : 2766.44㎡(836.844평) 지하1층 지상3층 매매가 40억 현 요양원 운영중, 빛그린국가 산업단지 인근

"상무지구 · 법원 앞 수익률, 입지조건 최상 건물 다량 보유"

경매 추천 물건

- 공 장** 전남 곡성군 삼기면 월경리 토지 : 9941㎡(3007.2평) 건물 : 3875.05(1172.2평) 감정가 29억3천만원, 최저가 (70%) 20억5천1백만원
- 공 장** 전남 여수시 울촌면 여동리 토지 : 16552㎡(5007평) 건물 : 7077.93㎡(2141.1평) 울촌제1산업단지내 감정가 55억5천3백만원 최저가 55억5천3백만원
- 근린시설** 광주 동구 충장로5가 78 토지 : 1403.6㎡(424.6평) 건물 : 8545.06㎡(2584.9평) 지하2층 지상8층 감정가 89억6천7백만원, 최저가 89억6천7백만원
- 근린시설** 광주 북구 중흥동 704-9 토지 : 662㎡(200.3평) 건물 : 4555.58㎡(1378.1평) 지하2층 지상10층 감정가 41억9천8백만원, 최저가 41억9천8백만원
- 근린시설** 전남 곡성군 곡성읍 읍내리 토지 : 607㎡(183.618평) 건물 : 762.51㎡(888.809평) 지하1층 지상3층 곡성읍내 감정가 6억9천3백만원, 최저가(70%) 4억8천5백만원
- 농 지** 광주 서구 쌍촌동 488번지 266㎡(80.5평) 감정가 2억3천6백75만원 원룸, 주택부지 적합
- 농 지** 광주 서구 동림동 180-1번지 1098㎡(332.1평) 감정가 2억8천9백9십만원 최저가 (70%) 2억3백만원
- 주 택** 광주 북구 운암동 780-56 토지 168㎡(50.82평) 건물 205.87㎡(62.276평) 감정가 1억6천8백만원
- 아 파트** 광주 북구 두암동 무등산 이스트리 1층 62평형 감정가 4억1천6백만원 최저가 4억1천6백만원

"광고 외 모든 경매물건 상담, 진행가능"

광주·전남 10~200억대 건물, 병원 다량보유 / 매매·임대·급매 전문/ 경·공매 전문

대표공인중개사 전민규 010-4234-8640, 062-714-2251